

행동하는복지연합의 모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다. 1999년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 2월 분리 독립이 결정되고 2005년 6월 22일 창립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활동하다 행동하는복지연합 창립과 함께 행동하는복지연합으로 자리를 옮긴 양준석 사무국장은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종합형 운동을 하다보니 사회복지만의 지속적인 사업이 어렵고 단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시민 사회 운동이 종합형 운동보다는 부문 운동을 강화하는 게 더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2년여의 내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독립하게 되었다”고 행동하는복지연합 창립 배경을 설명하였다.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 초기에는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이 신생단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정체성과 단체의 목적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심지어 무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의 활동을 지켜보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오니까 지역내에서 어느 정도 신뢰 받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행동하는복지연합’의 탄생

행동하는복지연합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투여되었다.

양준석 사무국장은 “행복연이라는 이름이 시민단체의 딱딱

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우리단체의 정체성과도 지향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정하게 된 것이다. 이름과 함께 로고가 그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로고를 보면 가운데 세잎클로버가 있는데, 그 꽃말의 의미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과 행복이 모여서 사랑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지역 내 예산모니터, 사회복지계획 제안 등 다양한 활동

행동하는복지연합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 내 예산모니터, 사회복지계획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활동 중 대표적인 사례는 충청북도에서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역할 정립 과정 참여이다. 건립 초기 계획자체를 보면 복지센터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에 걸맞는 기능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즉 복지관이 들어설 위치도 아니었고, 센터의 위상 자체가 복지관은 아니었는데 도에서는 복지관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공청회를 제안하고 센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합의 과정을 거치는 등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

행복연의 이러한 역할들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곧 단체의 운영목적과도 결부된다.



양준석 사무국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행동하는복지연합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는 행동하는복지연합이 복지운동 단체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해감에 따라 우리들의 역할을 현장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 단체가 속한 지역적 특성과도 관련이 깊다. 행동하는복지연합의 주 활동지역인 충청북도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며 소극적이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책적인 얘기나 애로사항들을 토로 하지만, 같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해보자고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분위기는 소극적인 부분이 강하다.

때문에 처음 이들 기관과 연계를 시작하고자 할 때 각 기관을 쫓아다니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 등 과정이 복잡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분과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등 연계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준석 사무국장의 인적 네

트워크 조직 방법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끔적이면 특정한 기관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기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보여주고, 만나고, 우리의 목적의식도 전달하는 활동을 취하고 있다.

행복연만의 브랜드

창립 3년차를 맞이하며 양준석 사무국장은 행복연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고민한다.

“행복연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행복연의 명확한 비전을 내세워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구 우리 복지시민연합은 옹호적 활동, 서울의 관악주민연대는 주민 조직화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기들만의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는복지연합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의도적으로 행동하는복지연합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분야에서 조금 더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적당한 인프라, 예산구조, 단체의 적절한 배합 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우리들만의 브랜드로 내세워야할지가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이고,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될 숙제가 아닌 듯싶다” SW

